장보고 구경하고…'관광형 시장'이 경쟁력

부활하라! 전통시장

〈中〉

시장특성 살린 마케팅 승부

상무지구장, 매주 산지직송 가판에 볼거리 넘쳐
말바우5일장, 지방 노점 줄이어 '풍물' 자리매김
양동시장, 토요경매 등 눈길…이용객 증가 효과

"볼거리, 체험거리가 가득한 것이 '진짜 시장' 아니겠습니까?"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에서 10년째 주방용품 점포를 운영중인 김모(35)씨의 말이다. 김씨는 "전통시장에 편의시설을 아무리 확충해도 대형마트를 따라갈 수는 없다"며 "구조가 복잡한 전통시장에서 시설 개선은 할 만큼 했으니 고객을 끌어당길 전략을 만들 때"라고 말했다.

한 건어물 점포 주인 서모(62)씨도 "시장을 한번 둘러보라"며 "반듯반듯 구획정리를 다하고, 건물도 깨끗하고, 비가림막까지 다 했지만 정작 손님이 없다.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에만 27곳의 전통시장과 상점가(전통시장 20곳)가 있고 전통시장 상인 수는 1만1000여명에 이른다. 이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곳이 양동시장이다. 복개상가를 제외한 순수 시장크기만 1만580㎡(3200평)에 330개 점포가 들어서 있다. 종사하는 상인만 5000여명 규모. 광주를 대표하는 시장이기에 시설 현대화사업이 가장 많이 이뤄졌고,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기도 하다.

(주)양동시장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복개상가 하부주차장 건설과 함께 건물 리모델링, 아케이드(비가림막) 설치, 전기시설공사 등을 꾸준히 거치며 상인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해 노력해왔다. 올해만 해도 정부와 지자체 예산을 들여 옥상 방수공사(5억원), 전기시설이설(4억2000만원), 시장 통로 대리석 포장(5억원) 등 시설 현대화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들인 돈'의 효과는 썩 좋지 않다. 광주시는 국비와 시비·민간부담을 합쳐 지난 2009년 100여억원에 이어 올해도 170여억원의 예산을 전통시장 시설 개선에 투입중이다. 그러나 시장경영진흥원의 '전통시장 백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전통시장 일 평균이용객은 2485명에서 지난해 2684명으로 8% 증가했을 뿐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시장 이용객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양동시장과 대인시장 등지에 대형마트와 같은 쇼핑카트를 보급했지만 1달 만에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통로가 비좁아 짐을 담기 위한 카트가 '짐'으로 변했고, 그 기간 관리 부실로 분실률은 50%에 달했다. 광주천 인근에 만들었던 주차시설은 어둡고 습해 상인들도 잘 찾지 않는 곳이 됐다.

상인들은 대형마트를 따라 편의시설 확충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시장은 시장다워야한다'고 주장한다. '전통시장'이란 명칭처럼 시장의 전통, 즉 구경거리와 체험거리가 있어야 이용객을 끌 수 있다는 말이다.

지난 1990년대 말 형성되기 시작해 도심 속 장터로 유명해진 서구 상무지구 장은 좋은 예다. 매주 금요일마다 가판 형식으로 열리는 이 장터는 산지에서 직송된 싱싱한 생선과 육류는 물론 옷, 신발, 간식거리까지 구할 수 있다. 매주 어떤 상인이 올지 모르기에 '구경거리'가 넘친다. 매달 끝자리가 2·4·7·9인 날만 정기적 장이 열리는 북구 말바우 5일장도 장날이면 담양과 곡성에서 올라온 노점이 줄을 이으며 '도심 속 풍물'로 자리매김했다.

(주)양동시장 김영식 전무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토요일 상품경매와 그림 그리기 행사를 실시한 결과, 이용객 증가 효과를 체감할 수 있었다"며 "시장 시설 확충에 앞서 볼거리가 다양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거듭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수라 광주일보 시민기자·전남대 경영학부

지난해 9월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에 문을 연 다문화 행복 장터 '무지개 마을'. 전통시장이 '문화관광형 ' 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안이기도 하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지역 상장사 부채 상환능력 떨어져

상반기 유동비율 122.62%…작년말보다 2.35%P↓

올 상반기 광주·전남지역 상장사의 단기 채무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유동비율'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6월 말 현재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11곳에 대해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금액 기준으로 산출한 유동비율이 122.62%로 지난해 말보다 2.35%포인트 감소했다.

유동비율은 기업의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로 기업의 단기 채무지급 능력을 판단하는 분석지표로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유동비율이 높을수록 상환 능력이 높다고 판단한다.

유동자산은 1조2397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5.77%(1688억원) 증가했고, 유동부채는 1조109억원으로 17.99%(1541억원) 증가했다.

유동비율 상위사는 광주신세계(417.02%), 부국철강(321.26%), 동아에스텍(215.26%) 등의 순이고, 유동비율 증가 상위사는 광주신세계(81.15%P), 부국철강(40.95%P), 대유에이텍(30.67%P) 등의 순이다.

반면 디에스알제강(-31.14%P)과 보해양조(-20.11%P), 화천기공(-14.31%P), KPX화인케미칼(-9.46%P)은 유동비율이 감소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서해안이 키운 싱싱한 꽃게요~"

22일 광주신세계 이마트 1층 수산코너에 당일 새벽 잡아올린 싱싱한 서해안 꽃게가 100g당 950원의 저렴한 가격에 선보여 인기를 끌고 있다. 꽃게는 단백질·칼슘·비타민·미네랄 등이 함유돼 뼈를 튼튼하게 하고 노화방지에도 탁월하다. 또 키토산 성분이 지방 흡착과 이뇨작용에 도움을 준다. 〈광주신세계 제공〉

"저가 매수 기회"…국민 76%가 주식

활동계좌 연일 최고치…이달만 12만2786개 증가

주가지수가 최근 폭락하자 '위기는 기회'라고 판단한 개인투자자들이 앞다퉈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의 학습효과 때문이다. 낙폭이 지나치게 큰 우량주를 사두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에 주식투자에 열을 올리는 것이다. 개미들의 최근 거래 동향을 보면 한동안 손을 놓았던 투자자들이 매매를 재개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신규로 주식 투자에 나선 개인도 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반영해 활동계좌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22일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8일 기준 증권 활동계좌가 1861만4786개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달에만 12만2786개 급증했다. 하루 평균 9445개가 증가한 셈이다. 지수 낙폭이 컸던 2~9일에 가장 가팔랐다.

활동계좌는 예탁자산이 10만원 이상이고 6개월간 한 번 이상 거래한 증권 계좌를 말한다. 동일인의 복수계좌를 배제하면 전체 경제활동인구 2448만명의 76%가량이 거래에 나선 것으로 추산된다.

활동계좌 수는 2000년 중 900만 개를 기록한 이후 2004년까지 감소했으나 2005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2007년 7월 1000만 개를 넘었고 이제는 2000만 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신규 증권계좌 개설도 크게 늘고 있다. 개인투자자 위탁매매 비중이 압도적인 키움증권은 5월 일평균 820개, 6월 700개, 7월 880개가 열리는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달 들어 18일까지 무려 1800개가 개설됐다. /연합뉴스

85개 저축銀 경영진단 마무리

10여곳 '자격미달'

하반기 구조조정을 앞두고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당국의 경영진단이 마무리됐다.

이 가운데 당국의 지도기준에 미달한 저축은행이 10여개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85개 저축은행에 대해 지난달 5일 일제히 착수한 경영진단을 지난 19일 종료했다.

금감원은 이 기간 예금보험공사, 회계법인과 함께 이들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비롯한 경영실적을 점검했다.

금감원은 이와 동시에 저축은행 대주주로부터 부실에 대비한 자구계획을 제출받았다.

일부 저축은행은 대주주가 증자를 단행하기도 했다.

그 결과 약 70개 저축은행의 BIS 비율이 확정됐으며, 일부 대형 계열을 포함한 나머지 저축은행은 BIS 비율 산정 등을 두고 최종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11 제주 골프투어 사은행사

태국·필리핀·중국·베트남 전문

이젠 제주도/ 해외 골프여행은 믿을수 있는 골프전문가 스피드 골프와 함께 하시면 편안합니다.

9월20일(화)~9월21일(수)1박2일 45홀 ₩ 399,000

일 자	이 동	여행일정
20일(화)	OZ8141 차량	광주 공항 보딩 (신분증 지참) 광주 출발(08:20) 제주 도착(09:05) 제주 도착 후 기사미팅 세인트포CC 18홀 숙소 투숙 및 자유시간 숙소: 에버리스 골프텔 54평 4인1실
21일(수)	OZ8141 차량	골프장 이동 후 클럽조식 에버리스CC 27홀 공항 이동 제주출발(19:20) 광주도착(20:05)

포함 사항 왕복항공료, 그린피 45홀, 클럽조식, 숙소, 수송차량, ★유가할증료

불포함사항 중식, 석식, 전동카, 캐디피.

8월 29일~10월 28일 까지 주중 1박2일 골프

★ 1. 한라산 골프텔 30평 (4인1실) 36홀
제피로스CC 18홀 + 한라산CC 18홀 ₩ 319,000

★ 2. 부영 골프텔 30평(4인1실) 45홀
더클래식CC 18홀 + 부영CC 27홀 ₩ 359,000

★ 3. 아덴힐 골프텔 30평(4인1실) 36홀
세인트포CC 18홀 + 아덴힐CC 18홀 ₩ 399,000

공통포함사항 왕복항공료, 그린피, 숙소, 수송차량, 클럽조식

불포함 사항 중식/석식, 전동카, 캐디팁, 기사팁, ★유가할증료

※10월 31일까지 주중 출발요금입니다. 주말출발요금 별도 문의!! 골프장 및 숙소 변경 가능합니다.

1조이상 출발 가능!! 24시간 예약 서비스 가능!! · 2박 3일 및 3박 4일 맞춤형 골프투어 가능!!

KOREAN AIR 아시아나항공 최우수 판매대리점 예약센터 투어클럽&스피드골프 투어 062)382-8201, 010-3613-7810